

“군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의 원년 만들 것”

올해 새해설계

조상래 곡성군수

5대 군정 운영 방향 제시...농업·관광·복지 강화 섬진강변 정착지역별 특화개발 등 선형 관광 확대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이라는 목표 아래, 2025년을 새로운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곡성군의 밝은 미래를 군민들과 열고, 군민 삶의 질을 높여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5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군민이 중심이 되는 활력 넘치는 곡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테이션 1928의 본격 운영, 리스틱 타운을 활용한 위케이션 활성화, 농촌 유학 정주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하우스 등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상수도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재정 지

원과 지역상품권 유통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둘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와 영농 스마트 단지를 준공해 곡성을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키울 방침이다.

또한 농산물 고급 브랜드화, 유통망 다양화, 신소득 작물 육성, 농업인 지원 정책의 강화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지속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했다.

셋째, 모두가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곡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섬진강변 정착지역별 특화개발

을 마무리하고, 대항강변 경관 자원화를 통해 섬진강과 대항강을 연결하는 선형 관광을 확대할 계획이다.

섬진강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과 수국공원, 물놀이공원 완공 등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계절 꽃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축제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넷째, 세대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 건강관리 센터 운영, 기초연금 지원, 유아부터 노년까지 세대별 맞춤형 복지망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곡성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기본소득 도입과 효도 택시 확대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군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한다. 바로폰 제도와 공감 행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민참여 예산과 찾아가는 읍면 행정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공직자가 ‘군민을 위한 마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민 중심의 행정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상래 군수는 “2025년의 화두로 ‘택중유화(擇中有火)’를 제시한다”며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과 공직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성군, 새해 임신·출산 지원 제도 개편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등

장성군은 12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이 종전 ‘출생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물품 구입, 병원비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1인 2회 제한을 출산당 2회로 확대했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초과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부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난자 냉동시술, 정관·난관 복원시술 지원이 추가돼 효과적

인난임 해결을 돕는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규모는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이다. 가급적 2개 지원사업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와 임신부 가정에 빠짐없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 변경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중점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보건소 건강정책팀(061-390-8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곡성 첫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달린다

6대 추가 도입 예정...도입률 50%

곡성군은 12일 “차량 만료 예정인 노후된 농어촌버스를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사진)로 교체해 지난달 30일부터 노선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기 저상버스는 낮은 차체와 경사판을 갖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경유 버스와 달리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환경 개선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유보다 저렴한 전기를 사용해 운수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어 이용객들에게 쾌

적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곡성군은 청정 자연환경에 걸맞게 올해에도 6대의 전기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해 전기 저상버스 도입률을 50%까지 높이고, 향후 폐차되는 농어촌버스는 모두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으로 군민들과 교통약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곡성군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구례, 산동면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산수유 열매 행사화·황토산책길 등 주민 친화형 숲

구례군이 산동면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을 선사했다. (사진)

12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속 정밀문화 확산을 위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 생활권역 실외정원 공모사업에 선정, 2024년 생활밀착형 숲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비 2억5천만원 등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다목적체육관 주변(산동면 원촌리 31번지 일원)에 5천㎡ 규모의 숲

을 조성, 최근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이 숲은 구례 산동면 산수유마을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산수유나무를 군락 식재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연상케 하는 홍단풍, 자엽자두, 홍가시 등 교목과 관목류를 혼용 식재했다.

수목 주변에는 수국, 버들마편초, 패랭이 등 여름에 꽃을 볼 수 있는 초화류도 심었다. 쉼터 광장 중심에는 팽나무를 심어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게 했으며 화단 구조물을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책길은 숲을 맨발로도 걸을 수 있도록 황토길로 포장해 휴식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민 친화 공간을 연출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에 특색있는 주민 친화적인 숲을 조성했다”며 “도시 숲을 잘 가꾸기 후변화에 대응하고 경관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군, 업무지침서 ‘건설과 업무편람’ 발행

업무 연속성·중단 최소화 도움

담양군은 “최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지침서인 ‘건설과 업무편람’을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편람은 총 30쪽 분량으로 인허가 업무, 도로 건설사업, 자연재해 대응 등 건설과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담양군은 이번 업무편람 발행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인수인

계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업무 비법을 기록하고 전파함으로써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편람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공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도로 점용 허가 등 다양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허가 업무와 도로 개설 및 시설과 관련된 행정 절차, 도로 내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도로건설사

업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대응 업무 부분은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김용희 건설과장은 “이번 업무편람 발행은 공공 행정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특히 인허가 업무, 도로 건설 사업, 자연재해 대응이라는 핵심 분야의 업무 표준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훈 기자



여수시가 지난 추석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캠페인을 전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작년 고향사랑기부금 236% 초과 달성

2년간 누적 모금액 11억...갯김치·간장계장·상품권 등 답례품 인기

여수시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로 총 7억700만원(6천699건)을 모금하며 목표액 3억원의 236%를 달성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2023년부터 2년간 누적 모금액이 11억1천800만원(1만74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부 건수의 98%는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차지했으며, 답례품으로는 갯김치와 간장계장, 멸치, 생선세트, 여수상품권 등이 인기를 끌었다.

여수시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출향

인사와 산단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동과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추진했으며, 12월 한 달간 전체 기부액의 51%가 모금됐다.

또한 여수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다섬이와 기부하고 요트탈래?’ 영상 게시를 비롯해 다양한 경품 제공 이벤트로 기부자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50개 업체, 124종의 답례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한 해 여수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내준 관심에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사업에 가치 있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지정기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부는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위기브’ 누리집, 금융기관(국민· 신한·기업·하나은행) 앱 등 온라인으로 도 가능하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만 겨울, 흑두루미와 힐링 여행 떠나요”

흑두루미 탐조여행·조계산 ‘티마카세’ 체험 등 운영

순천시가 순천만습지에서 겨울 철새와 교감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여행으로 초대한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습지는 겨울철 흑두루미와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로, 생태 보전 노력 덕에 2009년 40여 마리였던 흑두루미 개체 수가 2024년 7천600여 마리로 늘었다.

순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탐조 해설사와 함께 철새를 관찰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흑두루미 탐조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특별한 체험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4 대한민국 로컬체험 로고인’ 30선에 포함됐으며, 프로그램은 3월까지 네이버 예약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계산의 송광사와 선암사는 자연 속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명소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티마카세’ 체험은 티마스터와 함께 야생차를 음미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ASMR 산사길 투어나 책과 차

를 즐기는 ‘다독다독’ 등 독창적인 힐링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조계산과 송광사가 한국관광공사의 테마 홍보영상 촬영지로 선정되며 그 매력을 인정받았다.

순천 남파랑길은 도보 여행의 명소로, 갈대밭, 갯벌, 바다와 산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순천시는 계절

별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행객들에게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나를 만나는 시간, 순천 웰니스 라이프’ 프로그램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힐링 여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치유와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25년, 순천이 선사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순천만습지에서 흑두루미 탐조를 하는 관광객들 모습. <순천시 제공>